

원발성 폐암환자에 있어서 종격동 검사의 의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서강석 장봉현 이종태 김규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2년 1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중 술전 종격동 검사를 시행한 20례의 결과를 보고한다.

환자의 연령은 32세에서 72세이며 평균연령은 54.1세이고 남녀비는 4:1로서 남자에게 많았다.

원발성 폐암조직의 분류는 편평상피암 9례(45%), 선암 3례(15%), 대 세포암 3례(15%), 소 세포암 2례(10%), 기관지 세포암 2례(10%) 및 점막표피양 세포암 1례(5%)였다.

종격동 림프절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의 민감도, 특이도 및 정확도는 각각 83.3%, 40.0% 및 55.0%였다. 종격동 검사상 민감도, 특이도 및 정확도는 50%, 100% 및 88.9%였다.

종격동 검사는 컴퓨터 단층촬영보다 종격동 림프절 전이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으므로 원발성 폐암환자의 술전 병기분류에서 컴퓨터 단층촬영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